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Feb. 2015
Vol.3 No.2

- 의료 & 사역박람회
- 배드민턴 대회
- 사역국 탐방
- 교육부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열띤 반응’ 주안에 배드민턴대회 중 교구 선수들을 응원하는 성도들(관계기사 3면)

■ 의료박람회

‘문턱 낮은 건강검진’ 560여 성도들 진료 혜택

주안예교회 의료사역국이 주관하여 성도들의 각종 건강검사와 상담을 종합적으로 진행한 Health Expo가 지난 1월 31일(토) 벨리채플, 2월 7일(토) 비전채플, 2월 15일(주일) 벨리채플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올해 실시된 주안예교회 Health Expo가 예년에 비해 진료과목이 확대된 가운데 이복희 권사는 “성도님들, 미보험자, 저소득층 대상으로 성도들의 건강검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였다”고 실시 목적을 말했다.

진료과목으로는 초음파, 체질검사, 혈액, 내과, 산부인과, 한방, 상경추, 치과, 임상심리, 방사선, 독감예방주사, 안경검안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벨리와 세리토스에서 1회씩 진료를 예정했으나 초음파, 체질 검사의 지원자가 많아 벨리채플에서 1회 더 진료하였으며 초음파 137명, 체질검사 87명 등 과목별 총 진료인원이 561명으로 집계 되었다.

의료국 국장으로 진료의 전 과정을 총괄하며 섬김 이복희 권사는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진료에 임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검사를 통하여 몸의 모르고 있던 증상들을 발견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의료국 팀장 김연주 집사는 “성도님들의 폭발적 반응에 놀랐다. 많은 분들이 진료에 참가하



여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 의료사역이 성도님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며 기뻐했다.

교역자들, 의료국 국원과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성도들의 진료를 도우며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에 Health Expo가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복희 권사는 “향후 의료국 행사보다 교회 행사로 계획하고 준비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소 의료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인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집사는 “의료사역이 활성화되어 성도님들이 더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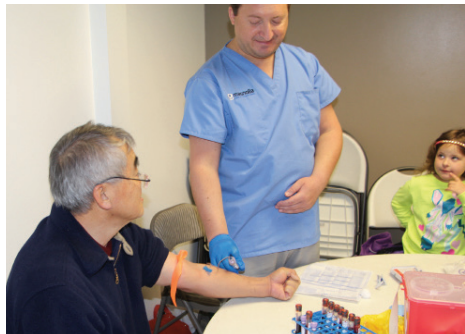
겠다. 그러기 위해 양방, 한방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가들의 섬김과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며 의료전문가들의 부족을 아쉬워했다.

금번 Health Expo 검진을 세리토스에서 도왔던 김비옥 집사는 검진 결과에 대하여 “검사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 갑상선에 혹이 발견된 분들이 많다. 그 외에 몇몇 분들은 각자 개인에게 검사 내용을 알려 드렸다. 전체적으로 검진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며 성도님들이 좀 더 건강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며 금번 검진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출 15:26),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낮게 하리라’ (렘 7:4) 말씀하셨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다. 모두가 알면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평소 스스로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과 식습관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국이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영일 기자 |



■ 사역박람회

2015년 주안예교회 사역국들을 홍보하고 헌신할 사역자를 찾는 사역박람회가 지난 1일 주일 채플별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20여개 사역국들은 특색있게 부스를 꾸미고, 다과와 선물까지 마련해 놓고 새내기 봉사자 찾기에 적극 나선 결과, 일부 사역국은 예상 인원수를 초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안예교회는 아직 두살이 채 안된 새 교회이기에 각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달란트와 소명감으로 사역을 찾아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열띤 경기, 하나된 응원... 떡국잔치까지

지난 2월 8일 오후 3시 벨리채플에서 전교인 배드민턴대회가 있었다. 약 90여명의 교인이 참가했다. 장년에서 중고등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동참하여 흥을 더했다. 4개 코트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배드민턴대회는 포화 상태에 가까웠다. 경기 운영을 담당한 배드민턴 동호회는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주안에 교회 교인을 포함 지역주민까지 동참하는 단체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심판진으로 봉사해 주신 백현철, 백현우, 정도훈, 윤지수, 박한신, 김제니, 조경일 간사 등 7명의 심판들은 주 1회 이상 모여 배드민턴으로 교제를 돈독하게 해오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원이다.

주일 오후에는 주안에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배드민턴을 즐기지만 주중에도 한번씩 모이고 주중모임은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주중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은 부부동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다.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게임을 하고 너무 어려거나 친구들과 만나 노는 것이 즐거운 아이들은 유아부 교실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르신들에게 주안에 라이프가 인기폭발이라면 배드민턴 동호회도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배드민턴 대회는 배드민턴 담당 김진홍 집사를 포함해 배드민턴 동호회에 속한 교인들이 열심이 봉사하여 벌써 비좁아 보이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 매끄러운 진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행사가 치뤄질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식사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정혜, 제니스 허, 이명주, 오혜수, 이은실, 김



제동, 이종희 집사 손길로 만들어진 떡국이 한 것 잔치 분위기를 정겹게 만들었다.

종합 순위는 벨리 5교구(김병선, 김수지, 강주혁)가 혼합 복식과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하였고, 2등은 벨리 2교구(이병만, 조나미)로 장년부 우승을 차지했다. 3등은 벨리 12교구(오성태, 오윤선) 혼합복식 준우승, 멀길 마다 않고 참가한 세리토스 8교구(황동성, 남성우)는 4등, 5등은 대견하게도 벨리 중고등부(조수아 김, 갈랩 윤, 윌림암 김, 리사 백)가 차지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장년부 우승 2교구 이병만, 조나미, 준우승 8교구 정도영, 정현옥이 차지했으며 혼합복식 우승에는 5교구 김병선, 김수지, 준우승 12교구 오성태, 오윤선에게 돌아갔다. 남자복식은 5교구 김병선, 강준혁, 준우승

은 세리토스 8교구 황동성, 남성우가 세리토스 채플의 체면을 살렸다.

대회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구역 혹은 같이 사역하는 인연을 쫓아 목청껏 응원하는 모습이 주안에교회 식구들을 진정 주안에 하나로 만드는 모습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듯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서로의 눈을 맞추고 몸을 부딪치며 우리 모두 주안에 하나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채플이 두개로 나뉘어 한 이름아래 한 가족임을 종종 잊어버릴 때마다 이런 행사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이후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연합 행사를 치루면서 더욱 튼튼히 하나로 묶어질 길 바란다. | 채은영 기자 |



■ 주안에훈련



3개 과정 3백여명 등록 ‘말씀 공부’ 뜨겁다

1월 마지막 주 주안예교회 벨리 채플과 세리토스 채플에서 주안에삶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주안예교회 말씀 잔치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주안예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벨리 채플은 주안에말씀이 8명, 주안의빛 94명, 주안에삶 55명이 등록하였고, 세리토스 채플은 주안에말씀 18명, 주안에빛 55명, 주안에삶에 47명이 등록을 마쳐 6주에서 18주 동안의 말씀 잔치가 성황리에 시작되었다.

먼저 주안에삶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젊은 열기가 시작부터 주안예교회를 가득 채웠다. 1권에서 3권까지 남녀 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반별로 적게는 세 명, 많게는 열 명까지 편성되었다. 또한 이미 교육을 마친 장로, 집사들이 지도자 교육을 따로 받아 지도자로 헌신하고 있다. 특히 벨리 채플 풍요로운 삶의 인도자인 김규실 집사는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면서까지 나와서 귀한 인도자의 사명을 다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양 채플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지도자들, 또 교회 관계자들의 진지한 자세에서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든든히 서가는 주안예교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리토스 채플에서는 이현욱 목사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라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트와 필기 도구를 꺼내들고 주시는 말씀을 적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어서 각 반의 지도자들이 소개되었고 각자의 반으로 나뉘어져 앞으로 6주간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설명이 있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라서 그런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진지한 자세로 매 시간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 참여하

는 필요와 목적은 조금씩 달랐지만 자세와 각오만큼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한 마디로 사람들이 육의 양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산소처럼 소중한 것이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 제복처럼 주안에삶을 살리는 주안예교회 성도들에게서 주안예교회의 밝은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나라의 미래까지 밝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벨리 채플의 조현정 집사는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하는 교인의 자세로 배



우려 나왔다고 각오를 밝혔고 홍영표 집사는 주안에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마음자세,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을 밝혀주었다.

벨리 채플은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반, 세리토스 채플은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되는 주안의빛 시간에는 벨리는 94명, 세리토스 채플은 55여명이 참석하였다.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으로 벨리 채플은 박정환 목사가, 세리토스 채플은 이현욱 목사가 각각 인도하고 있다. 점심을 먹고 2시부터 진행되는 시간이라 식곤증도 있고 피곤하지만 성경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자세에는

피곤함이 과교들 틈이 없다. 또 인도자도 재미있게 진행해주고 또 많은 예를 들어주므로 딱딱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강의를 쉽게 풀어주어 강의를 듣다보면 오히려 졸음이 쫓겨간다.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인도자이고 나침반이며 꽃대이고 목적이다.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의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씀이 담긴 성경은 그만큼 소중한 우리의 삶의 빛이고 소금인 것이다. 그래서 강의 시간 이름을 주안의 빛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66권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말씀의 배경과 기자, 시대의 상황, 서로의 연결 관계, 그 시대적 상황에서 주신 말씀을 현재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 등등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코스다. 주안에빛을 개설해준 교회에 감사한다.

성경 통독 시간인 주안에말씀은 벨리는 매주 수요일 7:45 PM 101호실, 세리토스는 매주 금요일 7:45 PM 비전 채플에서 진행된다. 성경 전체를 18주에 걸쳐 통독을 하는 시간이다. 영의 양식인 성경은 매일 읽어야하고 계속 읽어야한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렇지만 전체 통독을 혼자서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많은 경우 작심 3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또 매일 읽어야할 부분을 정해서 읽고 그 과정을 매일 확인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성공률이 높다.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함께 읽은 때였다. 혼자서 시작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도중에 중단하고 말았다. 18주라면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성경을 완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긴 시간도 아니다. 아무쪼록 참여한 모든 분들이 성경 완독을 끝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기원해본다.

| 조성운 기자 |

■ 마하나임 성가대(세리토스)

‘하나님의 군대’ 승리의 개가 힘차게...

주안예교회 세리토스 채플의 마하나임 성가대가 여호와 닮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군대의 참병 성가대로 힘찬 출발을 하여 작년에 초석을 다지고 이제 2015년을 맞이하였다. 주안예교회 세리토스 채플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으로 창립을 하고 작년 9월 첫 깃발을 높이 올렸다. 창립 당시부터 성가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였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여 오랫동안 성가대가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작년 8월 성가대가 조직되어 연습을 시작하였고 9월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0월에는 예배인도 관계로 지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이현옥 목사가 지휘봉을 강영웅 목사에게 인계하였다. 10월 하순에 황종섭 총무 집에서 단합 대회를 가졌고 12월에는 조성운 집사 집에서 단합대회 겸 성가대 조직과 임무를 나누었다. 그리고 지휘자로 강영웅 목사, 단장에는 정세화 장로, 총무에는 황종섭 집사가 임명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성가대원이 함께 하여 마하나임 성가대가 2015년 힘찬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됐다.

마하나임 성가대는 한 주에 3번의 연습을 한다. 주중 연습은 목요 영성예배 뒤에 10시 30분까지이다. 주중이고 여러모로 심신이 피로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우들에게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연습한다. 다음 연습은 주일 2부 예배 시작 전이다. 공식 연습 시작은 9시 30분이지만 많은 교우들



이 그 이전에 나와 기도회 동참하고 준비운동과 발성연습을 함께 하여 연습 준비를 마친다. 9시 반부터 주일날 드릴 찬양을 연습하고 중간에 한 번 휴식을 취한다. 이때는 교제와 간식의 시간이다. 마하나임 성가대 출범 때부터 안장호, 이경희 집사 부부가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다른 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주신 간식은 갈수록 푸짐해진다. 간식 뒤 마무리 연습을 하고 11시에 연습을 마친다. 강영웅 목사가 말씀으로 재무장을 사켜주고 통성기도 뒤에 분당에 입장한다. 세 번째 연습은 점심 식사 뒤에 2시부터 3시 반까지이다.

마하나임 성가대는 세 분의 임원 외에 김혜영 집사가 소프라노 파트장, 김찬준 집사가 테너 파트장, 이경희 집사가 알토 파트장, 김지태 집사가 베이스 파트장으로 수고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주에는 늘 말없이 김해자 집사가 아름답고 희생적으로 봉사해 주고 있다. 부

지휘자로는 반주자의 부군 되시는 김지태 집사가 맡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천상의 화음을 연주해 낸다. 그 구심점은 다른 아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다. 하나님과 하나님 세우신 주안예교회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다. 그리고 나와 다르고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대원들에 대한 사랑과 이해다. 마하나임 성가대는 6개월 된 어린 아이가 아니다. 비록 역사와 경륜은 짧고 적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교우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작지 않은 임무를 기억하고 한사람 한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5년에는 주안예교회 세리토스 채플의 중추적 기관으로 교회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고 어린 아이의 유지함을 버리고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우뚝 설 것이다.

| 조성운 기자 |

■ 주차국(벨리)

예배 돕는 봉사 보람, 질서와 양보의 미덕을

주일에 주안예교회 벨리채플에 들어오면서 보게 되는 주차 봉사자들, 그들은 주차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한 주차관리국 소속 봉사자들이다. 아침 7시 이른 시간에 교회에 모여 기도로 시작하는 주차관리국원들의 사역은 오렌지콘과 사인판들을 세우고 여기저기 휴지도 주워가며 각자 담당하고 있는 장소로 배치되어 주차안내를 돕는다. 남가주 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겨울의 매서운 찬바람을 마다않고 사계절 최선을 다하여 성도들의 주차를 도우며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국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넓은 주차공간을 한치의 오차없이 안내하여 아침에 예배에 오는 성도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회입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 첫번째 아이에는 어린아이와 동승한 차량과 연로하신 분, 2번째 3번째 아이는 승용차 그리고 4번째는 SUV와 중형차량이 파킹 할 수 있다. 그리



고 언덕 위와 교육관 앞에서는 봉사자와 성가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김진경 집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으로 알고 섬기고 있다”며 수줍어했다.

이원경 팀장은 “성도님들이 봉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주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봉사자가 있는 것에 관계없이 주차금지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교

회의 여러 사역부서에서 섬기시는 봉사자들이나 제직들이 모범적으로 주차함으로 본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사역국장인 오찬국 집사는 “늘 주차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주차관리국 봉사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주차 봉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여성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해 주셔서 주차관리국의 필요한 곳에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역박람회 통해 김효정 성도님이 조인하셨는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성 성도님들의 동참을 환영하는 마음을 전했다.

주차 봉사는 누구나 헌신된 마음만 있으면 참가할 수 있다. 교회를 오시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즐겁고 행복한 사역이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주차관리국 봉사자들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소망한다.

| 공태용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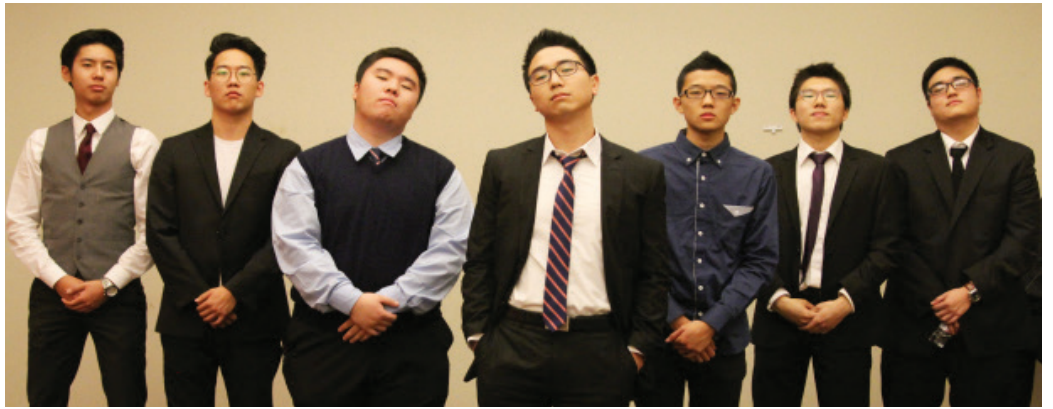
Happy Valentine's~!!



'러시아 인형'



터지면 안되는데...



어울리지 않는 표정 연기 중

주안에 배드민턴대회, 재밌는 선수들 표정들



바라보고만 있지요



공이 어디 있는데...



제기차기 연습?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내 멋대로 30년, 앞으로 30년은 주님께”

이현경 간사 (미디어, 웹 팀장)

안녕하세요. 주안교회 미디어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경 간사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지만 제 안에 말씀이 없었으므로 교회 가는 집을 피하기위한 도피처 정도의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 교회를 떠나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반항하듯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겠다고 무지 애를 쓰며 오로지 일 중독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환경과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며 마음 안에 온갖 스스로 짊어진 짐들로 무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계신지조차 잊어버리고 살던 서른 살 쯤의 어느 날 주님이 먼저 제게 찾아오셨고...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자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을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30년 동안 제 멋대로 살아온 시간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남은 30년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님께 서원하며 한국에서의 모



든 삶을 접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미국에서의 삶은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시작한 것과 같았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워낙 내 고집과 자기주장이 강한 죄성을 가진지라... 하나님 외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저를 불러 내 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제게 배무신 기적이었습니다.

직장은 단지 미국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체하며 살기 위한 수단일 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주님 없이 살았던 지난 모든 삶과 시간들을 사용해주셨고...그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예배와 말씀훈련을 받기위한 시간에 몰입하며 달려오다보니... 어느새 주안에

교회에서 미디어팀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고 또한 친근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엔 하루의 일과 한 달 후, 일 년 후... 멀게는 10년 후까지 철저히 계획하며 살던 저는 주님을 만난 후로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30년 주님께 드린 시간이란 서원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내일의 계획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민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지라 지금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 주님의 마음이 저의 원함이 되길 기도하며, 주안교회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을 섬기며 미디어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드러 열정적이고 민감하게 드러지는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늘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중고등부 배드민턴대회

경기에 양보 없지만, 격려와 응원 흐뭇

이번 2014년 2월 8일 전교인 배드민턴대회 참가자 중 14명의 중고등부 및 청년부가 참석하였다. 구역에서 짝을 찾지 못해서 청년부에 속해 경기를 치른 세리토스 9교구 소속 크리스 매기집사와 짝을 이룬 이성우 전도사는 빨리채플 중고등부소속 윤갈렘과 조슈아 김을 상대로 박빙의 경기를 치루었다. 종종 크리스집사가 게임에 마음을 빼쳐 상대가 중고등부임을 알고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가 민망해 하거나 이성우전도사의 의도적인 듯한 실책에 중고등부에서는 감사의 환호가 청년부쪽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웃음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상황이 비등해져서 여유를 부릴 형편이 못되자 다시 진진함을 되찾아 게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진지하기가 세계대회를 방불케 했고 응원의 열기도 대단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편 네편으로 나눠 협약하거나 초긴장상태에 빠질 법도 했지만 교회에서 치뤄지는 친선경기인 만큼 상대방의 실책을 자극하는 대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북돋아 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중고등부는 종합 순위 5위를 차지하였고 청년부는 남자 복식에서는 이성우 전도사, 크리스 매기집사팀이 우승, 조슈아 김과 갈렘 윤학



생이 준우승을 하였으며 혼합복식에서 윤상현, 조혜리자매팀이 준우승, 윌리엄 김, 리사 백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각각의 구역식구를 응원하던 부모님들도, 옆방에 둘러앉아 게임을 하던 중고등부 성이삭 전도사,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다 함께 응원했다. 잘하면 잘했다고 실책에는 격려의 함성으로 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세리토스채플 학생 참여가 없어 아쉬움이 남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감은 큰 장애라고 하겠다. 이후 행사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장년부의 협조와 좀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겠다. 친선경기를 치뤄지는 다른 한편에서는 가스펠에 맞춰 바다윌쉽을 하거나 둘러 앉아 즐거운 게

임을 하고 둘셋이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

요즘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도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둘 셋이 모여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인터넷게임을 한다. 머리를 살짝 돌리면 그곳에 친구가 있는데 말이다. 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난 한 주 혹은 한달 두달을 어떻게 지냈는가 물기에는 심리적 거리감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채플을 더욱 멀게 만든다. 손가락을 분주하게 움직여가며 부수고 죽이고 터트리며 하는 인터넷 게임을 멈추고 머리를 살짝 돌려 옆에 앉아 있는 친구와 몸을 부딪히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무것도 해준게 없지만 아이들에게 많은 일을 해준것 처럼 마음이 뿌듯해진다.

그리고 이번 대회처럼 어른들과 함께 하며 항상 옆에 있어 익숙하지만 언젠지 모르게 떨어져 있었던 가족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가 더욱 자주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한다. 자연스럽게 주일이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형태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내서 만나기를 힘써야겠다.

| 채은영 기자 |

■ EM HESED

Loving God Together



The name of our EM is Hesed, which means God's Love. The vision for Hesed is to walk with the Holy Spirit. The mission for Hesed is to train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to be biblically equipped and to have fellowship within Christian culture. For our training purposes, we focus on the following areas: (1) Prayer – we pray on a regular basis each week individually and together (2) Bible study – after Sunday worship service, we further study God's Word together in small groups (3) Fellowship – after our services and some weekends, we fellowship together through fun activities, so that we can grow closer to

one another (4) Leadership – for those who have the heart to serve, we provide opportunities to serve, such as praise team, media team, welcome team, etc.

Hesed is our EM and is open for all age-groups from college and above. As of now, we have approximately 20-25 members, where most are college students. For the Valley chapel, we meet at 1:00pm for our Sunday Worship Service. For the Cerritos chapel, we meet at 2:00pm for our Sunday Worship Service. Pastor Casey, who is a passionate leader and a servant of Christ, is the director of Hesed for both chapels. Sh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spiri-

tually guiding Hesed. Pastor Isaac is the pastor leading Hesed for the Valley chapel, and Im-Hoon missionary is the leader who is leading Hesed for the Cerritos chapel. We also have extremely dedicated deacon leaders, who support the pastors and the ministry in sacrificial ways: Robert Lee is the BJN for the Valley chapel and Won Cho is the BJN for the Cerritos chapel. Furthermore, the praise for our services are led by our humble and yet passionate praise leaders: Connie Seong is the praise leader for the Valley chapel and Joshua Han is the praise leader for the Cerritos chapel.

■ PSG(학부모 봉사 그룹)

‘사랑의 전달자’ 섬김을 소망하며

주안예교회가 다우니에 처음 세워졌을 때 어른들이 먹는 김밥과 떡을 먹지 않는 아이를 둔 한 엄마의 단순한 행동에서 세리토스 PSG는 시작 되었습니다. 김과 밥을 따로 가지고 오기 시작한 PSG가 60 Kids, 50 Youth 아이들을 매주 다른 음식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한 어머니들 때문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든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왔던 어린아이의 순종을 통해 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을 훌쩍 넘어 수많은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헤쳐 나가게 해주셨고 아이들의 두 손과 눈빛을 통해 기쁨을 느끼며 PSG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역이 없는 관계로 부르스타 2개를 놓고 못 만드는 음식이 없는 PSG staff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 양손 가득 들고 오시는 어머니들의 한 가지 바람은 그 음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바라는 사랑 그것입니다.

먹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어른들 먹는



음식 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시는 감동은 어릴 적 조그만 부엌에서 집사님들이 만들어 주셨던 칼국수와 떡국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자란 어느 한순간 교회 어머니들의 섬김의 기억이 떠올라 그 자리에서 사랑을 전달하는 섬김은 자들로 커 나갈 소망과 기대를 주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며 또 나아갑니다. PSG에 관한 기사를 부탁 받았을 때 참 난감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귀하고 사역자들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귀합니다.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이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빛이 너무 귀합니다. 이 글을 쓰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어머니들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목표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귀하고 사랑스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실 비전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향한 통로로써 쓰임 받는 것에 감사 하겠습니다. 빛진 자의 심정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오지 않게 소리 없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임원진은 세리토스 PSG Kids 회장 김선영, 부회장 류명수, 총무 스테이시 임, Youth는 아직 세워지지 않아 채은영 부장님과 김비옥 총무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한아이 엄마의 단순한 섬김으로 시작되었지만 매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이들의 식탁 뿐 아니라 교육부 사역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PSG를 돕기 위한 스태프가 더 많아져서 서로 동역하며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이메기 집사 |

하나님의 참 사랑 생각하는 축제로



2월 14일은 초코렛 시장의 일년 총 매출의 절반을 차지 한다는 발렌타인 데이이다. 그리스도교의 성인 발렌티노의 축일로 알려져 있는 발렌타인 데이 유래는 3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세기 후반에 발렌티노라는 이름으로 순교한 성인 3명 중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에 반대하다 270년 2월 14일 처형된 사제가 발렌타인 데이 유래의 주인공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원정에 징집된 병사들이 출병 직전 결혼을 하면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 결혼을 금지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두 남녀를 안타까워한 발렌타인 신부는 이들의 결혼을 몰래 허락하고 주례를 서주었고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달콤하지만 줄 알았던 발렌타인 데이의 시작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었다. 어찌 보면 송고하고 엄숙했을 발렌타인 데이는 14세기에서 15세기경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시작된 후 20세기 들어 미국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풍습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전 초코렛을 팔기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세상이 온통 핑크색으로 물들 때 우리 아이들 마음도 같이 핑크빛이 되는 걸 나쁘다 할 순 없다. 세상과 격리되어 살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명절 아닌 명절을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할로윈이 그렇듯 세상 어른들의 사리사욕에 점점 커져가는 이런 날들을 무조건 무시하라고 할 수만은 없으니 말이다. 어려서 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안예교회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다.

지난겨울 수련회 주제가 “come back home” 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알게 하고 우리의 선악과 상관없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초대하셨고 그 초대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신다는... 그러니 속히, 거리낌 없이 돌아오라는 메세지였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금요 찬양의 밤과 발렌타인 데이 행사가 치워졌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 “사랑”,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의 “지치지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유한하지도 않는 그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이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지치가 일수여서 변질되기 쉬운 핑크빛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강렬한 핏빛 사랑이다. 초코렛을 포장한 핑크빛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는 발렌타인 데이 만드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었다.

올해 2월 14일이 토요일이어서 공식적인 행사일은 2월 8일 주일이었지만 뱅킷채플은 발렌타인 데이 전날인 2월 13일이 금요일배로 모이는 날이었고 세리토스 채플은 하루 후인 2월 15일이 주일이어서 행사를 두 번씩 준비하는 어른들은 다소 힘이 들었지만 아이들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2월 8일 다른 날과 다른 조금은 성대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고 금요일배나 2월 15일 주일배 후 재미있는 게임과 나름 특별한 후식을 즐기며 흥겨운 날을 보냈다. 마켓에서 초코렛 하나를 사는 대신 시간과 정성을 담아 아이들에게 참 사랑을 전하고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들은 이렇게 교역자와 봉사자들이 차려준 잔치를 즐기면서 요란한 세상과 구별되어서도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이렇게 반복되는 학습으로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세상을 품고 내일을 준비했다. 의미 없는 일에 각가지 의미를 부여하며 장사 속을 채우는 세상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려면 세상보다 지혜로워야 가능한 일이다. 탁월한 마케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이익창출이 최상의 가치인 것으로 둔갑시킬 동안 우리는 그보다 더한 열심이 말씀을 따라 비둘기처럼 순전하나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하고 대비해야 한다.

세상이 발렌타인 신부의 사랑의 메세지를 초코렛으로 지워냈다면 교회는 다시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듯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길 원한다. 이제 다음 주면 두 번째 금요 찬양의 밤이 진행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진 이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 그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은 짐만큼의 사랑을 확인하길 바란다. 너무도 무섭고 빠르게 끝을 향해 내달리는 이 세상에 대해 살아온 세월만큼의 책임이 있는 어른들이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길 희망한다.

| 채은영 기자 |



■ 문학과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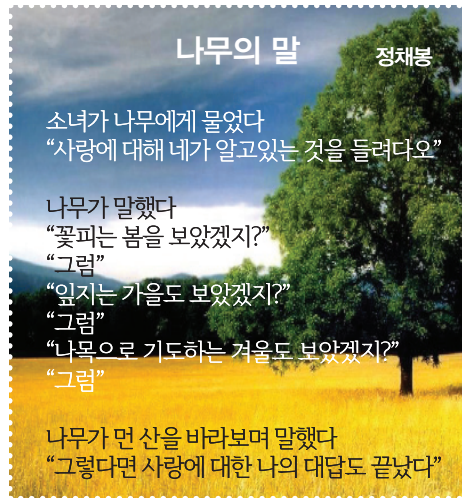
주님 '소리없는 소리' 에서 배우게 하소서

2001년 55세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시인이며 대한민국의 동화 작가였던 고 정채봉 선생은 동화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수많은 창(窓)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신기한 것은 규격화된 창문 너머로 습관적으로 바라보던 세상이, 정채봉의 동화라는 창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환상적인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그 동화의 세상은 우리가 있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다시 환기시켜 주면서 마음을 맑게 다듬어준다.

정채봉은 1946년 전남 승주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바다, 학교, 나무, 꽃 등 그의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이 바로 그의 고향이다.

그와 여동생을 낳고 어머니는 스무 살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버렸고 아버지 또한 일본으로 이주하여 거의 소식을 끊다시피해서 할머니가 정채봉 남매를 키우게 됐다. 소년 시절, 채봉은 늘 혼자였다. 내성적이고 심각한 성격으로 학교나 동네에서도 맘에 맞는 한 두 명의 친구가 있었을 뿐 또래 집단에 끼이지 못하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 어린 정채봉은 그렇게 상상의 나라를 펼쳐 나무와 풀, 새, 바다와 이야기하고 스스로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하는 '생각이 많은 아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결혼 가정'에서 성장한 소년의 외로움은 오히려 그를 동심의 꿈과 행복, 평화를 노래하는 동화작가로 만들었다.

쉽고 간결한 모든 작품에서 나타나듯이 그의 선



량하고 투명한 정서는 고향과 할머니의 사랑으로 빛어졌을 터, 남도의 정답고 끈끈한 언어와 인정, 그리고 그의 눈매 깊숙이에 서려있는 그들은 이 시 속에도 아침이슬처럼 영롱하게 맺혀있지 아니한가. 꽃 피는 봄, 잎 지는 가을, 나뭇으로 기도하는 겨울! 결국 인생의 사계를 시인은 "사랑"이라 정의한다. 그렇게 꽃피고 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바로 "사랑"으로 인함이 아니냐고...

문득 정채봉 에세이 <눈을 감고 보는 길> 중 그가 암에 걸리기 전 어느 햇살 좋은 날 서울대 병원의 길 건너편에 있는 창경궁까지 산책을 나가 느낀 그의 단상이 가슴에 축축히 스며든다... 고궁의 오래된 향나무 밑의 벤치에 앉아있자니

새하얀 웨딩드레스의 신부와 검정예복의 신랑이 사진찍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문득 향나무에게 물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행복한 신랑 신부이지요?" 하고 그러나 향나무는 그저 바람에 잔가지만 가볍게 흔들 뿐이었습니다. 건너편 쪽벤치에는 나이든 노인 세 분이 앉아서 해 바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향나무한테 노인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번 역시도 잔가지만 흔들어 보일 것이 뻔해서 나는 그저 대궐의 처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 없는 소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청춘, 영원한 원수, 영원한 권좌도 없다는 것을 이 향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바람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갑자기 앰블란스의 경적소리가 고궁의 정적까지도 깨뜨립니다. 또 한 생명의 화급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새하얀 웨딩드레스의 신부 입가에는 미소가 여전히 한나절입니다. 한시간의 산책이 꽤나 먼 시간 속을 헤맨 것 같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암수술을 받으러 들어 가는 날 새벽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홍수가 들어도 넘치지 않는 겹손과 가뭄이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여유를 알게 하고 항상 움직임으로 썩지않는 생명 또한 배우게 하소서" 라고...



서미숙 기자

주안에
교우

비즈니스
소개

coway

- * Bidet
- * Water Purifier
- * Air Purifier
- * Water Softener

황은숙 (Deborah)
Pro HP
COWAY USA INC.
Cell : (949) 874-8825
Fax : (714) 739-4354
7800 Commonwealth Ave. #201
Buena Park, CA 90621
www.coway-usa.com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are Company

3700 Wilshire Blvd, #265 L.A.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HISCO 히스코 자동차 그룹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가격

"주안에 교회 형제, 자네님들에게 필요하신 차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대표 **권문상 (Joshua Kwon)**
Dealer Number : 99371

- ▶ 모든차 구입과 리스
- ▶ 경제적이고 세금없이 할수있습니다
- ▶ 통역사는 영어 직접 내강에 드립니다.
- ▶ 일본승용차부터 큰 트럭까지 전차종 취급

hiscoauto@gmail.com | Cell : 714-357-7070 | Phone : 310-530-7979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정원 공사

Tel :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기고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선교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이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지상명령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실천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

우리 주안예교회는 목회비전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선교와 구제가 주님의 지상명령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 하에 신학대학과 대학원 과정의 맞춤형 신학대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선교와 구제차원에서 부모 선교사의 길을 따라 헌신되고, 문화, 언어, 신앙이 준비된 M.K. 선교 후보생과 어려운 경제 환경의 목회 지망신학생, 선교사 등에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

도록 길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선교를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삶의 현장에서 ‘나는 선교사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 부르셨건 그 곳이 나의 선교지요, 선교의 마음을 가질 것을 최혁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늘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선교도 구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자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을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일생을 헌신한 동기도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

고, 영국 서식스 지방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롤랜드 빙햄이 “아프리카에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실천했던 그의 삶도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뿐이겠는가!

우리조국 한국 땅에 선교를 위해 도착하자마자 순교자가 된 토마스 선교사(런던선교회), 자신들을 돌볼 틈도 없이 진료와 선교에 온 힘을 쏟았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나 스스로 선교나 전도에 앞서 거창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과 기도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성도 개개인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주안예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나 구제사역을 위해 교회의 선교구제헌금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협력하고 동역하는 우리 주안예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경일 기자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간식으로든 가벼운 한끼의 식사로도 영양면에서 손색이 없는 떡잡채는 구역예배에 한번쯤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한국 음식이 아닌가 생각 된다.

< 잡채/궁중떡볶이 >

박창신 기자

1. 재료

8인분 가래떡/떡국떡 1봉지 (2파운드), 소고기 1파운드, 표고버섯 10장, 양파 1개, 피망 빨강, 파랑 1개씩, 당근 작은 것으로 1개, 간장, 다진 마늘, 물엿, 참기름, 소금, 후추, 생강 조금씩

2. 만드는 법

- 1) 소고기는 가래떡 길이(4 cm)로 채 썰어 마른 행주로 핏물을 빼고 약간의 간장, 물엿, 후추가루와 생강 다진 것으로 밑간을 한다.
- 2)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 준비한다.

3) 가래떡/떡국떡은 따뜻한 물에 살짝 불려서 말랑하고 쫄깃하게 준비한다.

4) 양파, 피망, 당근은 가래떡과 같은 길이로 썰고 표고버섯은 채썰어 놓는다.

5) 철판이나 후라이팬에 다진 마늘을 중간불에 약간의 기름을 넣고 볶다가 1번에 소고기를 넣고 볶는다.

6) 소고기가 익으면 가래떡(떡국떡), 양파, 피망, 당근, 표고 버섯을 넣고 볶은 후 참기름, 후추가루, 소금, 깨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상에 올린다.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 생명보험
- 은퇴연금
- 주택보험
- 건강보험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news123@gmail.com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 All to Jesus | Surrender

25년 전,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작은 아이의 바이올린을 지도하는 미국 선생님이 자신이 다니는 미국교회에서 제 아이가 특송을 연주하게 되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교회는 페닌슐라 지역 Pacifica언덕 위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인교회보다 더 아늑하고 경건한 예배 분위기에서 아이가 연주한 곡이 이번 호에 소개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All to Jesus I surrender’ 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이어진 교회 성가대의 합창곡도 같은 곡이었습니다. 합창할 때 웅장한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영어가사의 후렴 부분이 얼마나 가슴을 파고 들었는지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ur,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두 손모아 올려드리는 내 자신의 모든 것, 내 가정, 내 직장, 나의 재능과 시간, 나의 꿈과 아름다운 동경, 모두 모두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광경이 환상이 되어 제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생생한 기억을 지금까지 항상 간직하게 된 데에는 우리 한인교회의 봉헌시간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년 주일예배의 봉헌순서에서 빠짐없이 이 곡을 부르게 되니까요. 지금도 대부분의 한인교회에서는 이 곡을 헌금시간에 봉헌송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정 찬송가, 1931> 부터 현재의 새찬송가에 이르기 까지 ‘봉헌’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헌신과 결단’의 찬송으로 작사 작곡된 것입니다. 작사자 ‘벤디 벤터(Judson W. Van De Venter, 1855-1939)’는 1855년 미국 미시간주 던디(Dundee)에서 태어났습니다. ‘힐스데일대학(Hillsdale College)’과 유럽에서 음악과 미술 공부를 하고 펜실베이니아의 ‘샤론(Sharon)’에서 고등학교 미술교사 장학관이 되었습니다. 몇 해 후, 그는 미술교사직을 떠나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할 때인 1896년 그는 이 곡을 작사하게 되는데 그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오하이오의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집회를 할 때 쓴 것이다. 나는 내 모든 재능을 주님께 다 바쳐 풀타임 복음전도사로 나가느냐 마느냐로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내 결단의 순간이 왔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쳤다. 새날과 새 인생이 내 앞에 펼쳐 졌으며 내 속 깊이 감춰져 있던 달란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

나님께서는 찬양하는 달란트를 내 속 깊이 숨겨두셨는데 이제야 나타나게 된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찬양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복음 전도사가 되었고 헌신을 다 바쳐 ‘윌버 챔프먼(Wilbur Champman)등과 함께 미국과 영국에서 복음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플로리다 성경학교(현 Trinity Bible College)’에서 찬송가학 교수로 4년 동안 강의를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작곡자 ‘윈필드 위든(Winfield S. Weedon, 1847-1908)은 미국 오하이오주 ‘미들포트(Middleport, Ohio)에서 1847년에 태어났는데 ‘벤디 벤터’와 함께 팀을 이루어 음악담당자로 복음전도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미성으로 전도집회에서 찬양을 불렀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두 콤비가 만든 찬송가가 하나 더 있는데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가 바로 이들의 합작품입니다. 말년에는 호텔사업을하여 번 돈으로 전도사역을 후원하기도 한 그는 1908년 뉴욕주 ‘비스비레이크(Bisby Lake)’에서 세상을 떠나 뉴욕 ‘우들론(Woodlawn)’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작곡한 찬송가 제목인 ‘I surrender all’ 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서세건 기자

“주안에” 2015년 3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공태용, 김경일, 김헬렌, 라형철,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오철호, 이현주, 조성운, 조용대, 조이 메기, 채은영, 최민애, Annie Yun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은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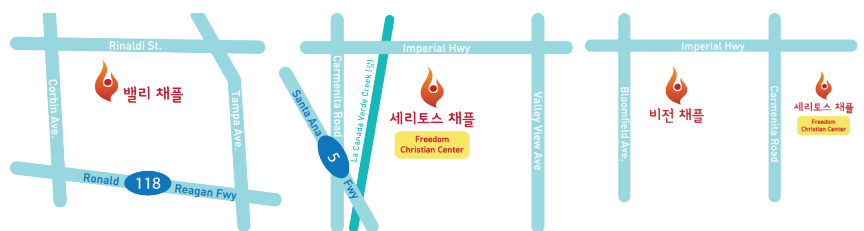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